

# 천주교 콜럼버스 교구 한인성당



본당주소: Holy Family Church 584 W. Broad St. Columbus, OH 43215  
 홈페이지: <http://www.kcolumbus.org>  
 주임신부: 김충귀 베드로 신부 (badackk@yahoo.co.kr, 614-961-0980)

- \* 주일미사 :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 \* 유아세례 : 매월 둘째 주일 미사 후
- \* 병자봉성체 : 매월 셋째 주일 미사 후

## 본당 소식

- ◆ 11 월은 **위령성월**입니다. 삶과 죽음의 의미를 특별히 되새기는 이 시기에 떠난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받은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합시다.
- ◆ **예비신자 교리 신청 안내**  
 \* 신청하실 분은 광광주 예로니모 형제님 (614-214-6770)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성가단원**을 모집합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성가단장 박영주 마리아 자매님 (614-315-8598)에게 연락바랍니다.
- ◆ 매월 둘째 수요일, 본당 **빈첸시오회**에서 **홀리스 무료급식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일시: 매월 둘째 수요일 12 시-1 시
  - 장소: Faith Mission Shelter (599 E 8<sup>th</sup> Ave. Columbus)
- ◆ **천교 준비 봉사자**
  - 11 월 16 일: 박종현
- ◆ **11 월 천교 후 정리 봉사**: 정하상 구역

- ◆ **2008 년 BAA (Bishop's Annual Appeal)** 모금에 많은 교우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BAA 모금은 콜럼버스 교구의 모든 본당에서 이루어지며, 모금액은 주교님께서 정하시는 가톨릭 교육 사업, 성소 개발, 사정이 어려운 단체나 본당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 올해 우리 공동체의 목표금액은 \$6,427 이며 지난 주까지 모금액은 \$6,427 입니다.
  - 참여하실 분은 재무위원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         |          |
|---------|----------|
| 주 일 헌 금 | \$467.00 |
| 교 무 금   |          |
| BAA     | \$237.00 |
|         |          |

- 교 무 금: 고상식
- BAA : 김영천 신예림



# 천주교 콜럼버스 교구 한인성당

The Korean Catholic Church of the Diocese of Columbus

연중 제33주일 November 16, 2008



<달란트의 비유>

에기노 바이너트 (1920-), 칠보, 작가소장, 독일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 오늘의 전례

제 1 독서 잠언 31,10-13,19-20,30-31  
 “훌륭한 아내는 제 손으로 즐거이 일한다.”

화답송



제 2 독서 테살로니카1서 5,1-6  
 “주님의 날이 여러분을 도둑처럼 덮치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리라.  
 내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 알렐루야

복음 마태오 25,14-30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 공동체를 위한 묵주기도 50만단 바치기 운동

- 지향1) 공동체 자체 건물 마련을 위한 지향
- 지향2) 공동체안에서 고통중인 신자를 위한 지향
- 지향3) 공동체안에서 성소자 계발을 위한 지향

| 구역    | 지난 주일   | 합계                   |
|-------|---------|----------------------|
| 김제준   | 단 명     | 2,635단 19명           |
| 이호영   | 657단 4명 | 14,213단 82명          |
| 정하상   | 단 명     | 3,485단 77명           |
| 황석두   | 단 명     | 6,995단 72명           |
| 김효임   | 단 명     | 1,171단 29명           |
| 학생 구역 | 단 명     | 10단 2명               |
| 미사 중  | 단 명     | 12,109단 10,315명      |
|       | 657단 4명 | 22204-11/9/08 (247주) |

☞ 총누계: 204,973단 12,695명  
 묵주기도 목표단수는 매주 5천단입니다.



### 봉사자 안내

|         | 11월 16일 | 11월 23일 |
|---------|---------|---------|
| 해설자     | 김오경     | 신현태     |
| 독서/봉헌   | 김제준 구역  | 김효임 구역  |
| 보편지향 기도 | 십자가의 모후 | 평화의 모후  |

### 오늘의 성가

♫ 입당: 16      ♫ 봉헌: 213  
 ♫ 성체: 501 502      ♫ 파견: 34

## 생명의 말씀

### 기쁨과 소명

박성철 미카엘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하느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들은 기쁨의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자기가 맡은 일을 하기 싫은 노동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성가시고 하기 싫은 힘든 노동이 아니라 매사가 기쁜 일일 뿐입니다. 노동이 빵을 구하기 위한 직업과 관련이 있다면 일은 소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일은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있고 기쁨으로 그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을 합니다”(요한 5,17).

사제로서 살아가는 것도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직업이 아니라 소명(召命)을 사는 일입니다. 기쁨으로 사제직을 살아가는 신부들은 보기에 좋습니다. 기쁘게 미사를 봉헌하고, 기쁘게 성사를 집행하는 사제들은 아름답습니다. 그것이 사제들이 일상에서 해야 할 작은 일들입니다. 그 작은 일에 충실한 사제들을 교우들은 좋아할 것입니다.

돌아가신 마더 데레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부터 시작되는 사랑은 작은 일들이나 자질구레한 일들도 귀찮아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하게 합니다. 작은 일에 충실하다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작은 일에 충실하십시오... 하느님께 사소한 것이란 없습니다.”

오늘 복음의 비유 이야기에서 주인은 자기 재산을 사람들에게 맡겨 줍니다. 사채놀이하며 고리대금업자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알맞은 은총을 나누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각자 하느님 은총의 관리자입니다.

오늘 복음은 하느님 은총이 어떻게 해서 풍요롭게 되는지 그 비결을 알려줍니다. 우리들에게 맡겨진 작은 일을 기쁘게 하고 충실하게 하는 것이 그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일에 충실했으니 이제 내가 더 큰 일을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자, 오십시오. 와서 여러분의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눕시다!”

하느님 은총은 그것을 고맙게 받아들일 때 점점 더 풍요로워집니다. 하느님 은총은 그것을 자기 것으로만 움켜잡지 않을 때 더 풍요로워집니다. 하느님 은총은 그것을 기쁨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점점 더 풍요로워집니다. 이것이 하느님 은총의 신비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작은 일에 충실하고 그 일을 기쁨으로 하는 것이 기본일 것입니다. 기쁨이 없다면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일에 결코 충실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언제나 하느님의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자신을 잊고(發憤忘食 발분망식),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니 기쁨 가득하여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樂而無憂 낙이무우).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